

GOUTAL  
PARIS  
COUTEUR DE PARFUMS

구말 파리 GOUTAL PARIS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



### 깨끗한 겨울 숲 향 그리고 난로 같은 따뜻한 빛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장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아모 레퍼시픽의 대표 향수 브랜드 구말 파리에서도 2019년 연말을 맞이하여 서정적인 향과 독창적인 프렌치 감성을 담은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은 크리스마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스토리인 '호두까기 인형'을 모티브로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구말 파리의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은 '윈 포레 도르 캔들 리미티드 에디션', '베스트 셀러 디스커버리 세트' 총 2가지로 출시됐다.

윈 포레 도르 캔들 리미티드 에디션은 겨울 숲을 거니는 듯 차갑고 깨끗한 숲 향에 따뜻한 빛과 같은 시트러스 향이 어우러져, 산뜻하면서도 포근한 향기로 공간을 채워주는 캔들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시키는 그린 컬러의 캔들 용기에 호두까기 인형 디자인을 더해 연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베스트셀러 디스커버리 세트는 휴대가 용이한 트레블 사이즈로 출시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수 세트이다. 크리스마스에 선물할 사람에게 어울리는 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쁘띠 프 웨리', '오드 아드리앙', '떼뉴 드 스와레' 총 3가지 향으로 출시되었다. 구말 파리의 베스트 셀링 향인 '쁘띠 프 웨리'는 달콤하면서 머스키한 향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을 안겨주는 향이다. 그 외에도 따사로운 햇살과 상쾌한 바다 향에 산뜻한 사이프러스 향기를 더한 '오드 아드리앙'과 대담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구르망 시프레 계열의 향 '떼뉴 드 스와레'를 함께 선보였다.

연말연시 프렌치 감성의 향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구말 파리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은 백화점 구말 파리 매장과 온라인몰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강슬예 The Boutique 기자



구말 파리 제공  
▲▲ 구말 파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모티브로 한 홀리데이 리미티드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 연말 분위기를 더해줄 한정판 캔들 '윈 포레 도르 캔들 리미티드 에디션'.  
▶ 휴대가 용이한 트레블 사이즈로 출시된 향수 세트 '베스트셀러 디스커버리 세트'.

오드 ODE 드비알레 라운지 (DEVIALET LOUNGE)



### 오디오계의 '애플', 프랑스 드비알레 라운지 신사동에 오픈

사운드 플랫폼 브랜드 오드(ODE)가 고품질의 사운드와 미래지향적인 외관으로 오디오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드비알레(Devialet)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드비알레 라운지를 11월 1일 강남구 신사동에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드비알레 라운지는 오드가 운영하는 신사동 복합 문화 공간 '오드 포트(ODE Port)' 3층에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1채널에서부터 스테레오 채널, 4채널, 7.7채널, 하이엔드 홈 시네마까지 다양한 채널 구동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드비알레의 대표 모델인 '팬텀 프리미어' 시리즈부터 리미티드 에디션 '골드 팬텀 오페라 드 파리', 작지만 강력한 '팬텀 리액터', 하이엔드 앰프계의 대명사 '엑스퍼트 프로(Expert Pro)' 시리즈, 그리고 오디오 액세서리까지 드비알레의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오드 제공  
오드 포트 3층에 위치한 '드비알레 라운지'. (사진 위 아래) 드비알레 라운지에서는 팬텀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드비알레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 가운데)

이번 드비알레 라운지 오픈을 비롯해 드비알레는 오드와 공식 독점 수입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한국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드비알레 세일즈 & 마케팅 글로벌 디렉터 프랑수아 루오(François Ruault)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오드만이 드비알레와 동일한 철학을 가졌다. 그것이 오드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라고 말하며 "단순히 오디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음악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오드를 통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하는 재미를 드비알레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운드플랫폼 오드는 덴마크 '스타인웨이 링돌프', 독일 '버메스터' 프랑스 '드비알레' 등 18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를 국내에 독점으로 소개하는 국내 대표 사운드 플랫폼으로, 제품뿐만 아니라 신사동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디오 쇼룸 '오드 메종(ODE Maison)'을 시작으로 복합문화공간 '오드 포트(ODE Port)', 레코드 숍 '오드 레코드(ODE Record)', 서울 사운즈 한남에 위치한 음악 콘텐츠 전문 상영관 사운드 씨어터 '오르페오(ORFEO)'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공간을 통해 고객이 최상의 사운드를 직접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김현수 The Boutique 기자



### OPEN !!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 호간이 국내 첫 번째 부티크로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지난달 25일 매장을 열었다. 호간 회장이자 토즈 그룹 부회장인 안드레아 델라 발레는 이번 오픈을 맞아 "새로운 부티크 오픈은 호간이 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움직임"이라며 "호간이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취향을 가진 고객들을 위한 럭셔리 브랜드들 사이에서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브랜드 호간은 토즈 그룹의 계열사로 1986년에 설립됐다. 훌륭한 품질로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여유로운 여반 룩 스타일을 대표한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구찌 멘즈(Men's) 스토어를 오픈했다. 약 206평방미터 규모로 레디-투-웨어, 러기지, 슈즈, 레더 소품과 함께 실크, 벨트, 향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바닥은 다채로운 무늬의 대리석으로 3차원 효과를 냈고, 내부는 벨벳 소재 안락의자 등 부드러운 요소로 바닥과 철재 표면이 주는 차가운 느낌을 완화시켰다. 전통성과 현대성, 인더스트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을 아우르며, 질풍주위를 따르는 구찌 하우스 제과와 어울려진다.